

## 국민 4명 중 1명, 유선전화 쓴다



▲ 미국 성인의 25.4%는 유·무선 전화를 모두 사용한다. 사진=shutterstock

미국 국민 4명 중 1명은 여전히 유선 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시스'가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NCHS)의 지난해 말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25.4%는 유·무선 전화를 모두 사용한다. 또 '유선 전화만 사용'하는 경우는 2%, '대부분 유선 전화에 의존한다'는 응답은 3%, '전화기 없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였다.

지난 6월말 발표된 가장 최근 결과에 따르면 유선 전화 이용자 가운데 주택 소유자는 34%, 임대자는 15%였다. 백인이나 흑인(30.5%)이 히스패닉계 미국인(20%)보다 유선 전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유선 전화를 사용하는 가구들 중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65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유선 전화보다 무선 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지만, 고령층인 65세 이상에서는 유선전화를 쓰는 사람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아이다호주처럼 농촌이면서 산악 지대인 지역과 오를라호마주, 미시시피주 등에서 아직까지 유선 전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미국 유선 전화 가구 3분의 1 미만은 정전 시에도 전력이 자동 공급돼 작동되는 구리선으로 연결됐다. 반면 오늘날 대부분의 유선 전화 가구는 현재 보통 인터넷 연결을 통해 전화하는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형식이다.

## 쇼핑 시즌 대비한 구인 2008년 이후 최저

연말 쇼핑 시즌에 대비한 미국 소매업체들의 계절성 구인 계획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연합뉴스'가 CNN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재취업 중개업체 '젤린저, 그레이&크리스마스'는 쇼핑 시즌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미국 소매업체들의 올해 구인이 41만건에 그칠 전망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쇼핑 시즌을 앞둔 미국의 계절성 구인은 지난해 50만9천300건, 2021년 70만1천400건이었다.

통상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4번째 목요일인 추수감사절의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 크리스마스 및 연말 연시까지의 기간이 쇼핑 대목으로 통한다.

그동안 미국인들이 높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기 저축액을 바탕으로 왕성한 소비를 이어왔

지만, 소매업체들은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이러한 추세가 끝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 뉴욕 한 거리에서 있는 아마존 배달 차량에 구인광고가 붙어있다. 사진=shutterstock

다만 아마존은 쇼핑 시즌에 대비한 계절성 구인을 확대, 25만명을 채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아마존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아마존은 이들 계절성 노동자의 평균 시급도 지난해 19달러에서 올해 20.5달러로 올렸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인들의 소비 행태가 온라인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소매업체들의 채용은 줄어드는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의 구인은 늘어나는 것으로 봤다.

젤린저 측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추가 채용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 채용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 “과일음료에 과일 없다”...스타벅스, 집단소송 직면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내세운 음료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19일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전합리적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뉴욕 및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망고 드레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시아 레모네이드 리프레시' 등에 실제로는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시아가 없어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 4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 뉴욕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사진=shutterstock

달러로 전해졌다.

이에 스타벅스는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면서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한 소비자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존 크로닌 담당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소장에 담긴 주장이 '부정확한 데다 타당성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DPOINT REALTY** 미국내 상위 5% Top Agent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주택/상가/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Leah Ivy Chang Realtor 949.501.8555**

656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 8 Corporate Park #220. Irvine, CA 92606

2	9	4	7	1	5	8	3	6
7	1	8	9	6	3	4	2	5
3	5	6	2	4	8	7	9	1
8	2	7	1	5	4	3	6	9
4	3	5	6	9	2	1	7	8
9	6	1	3	8	7	2	5	4
5	7	9	4	2	1	6	8	3
6	4	2	8	3	9	5	1	7
1	8	3	5	7	6	9	4	2